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 입회하여 30여년 수도여정을 걷고 있는 최현민 수녀입니다. 1988년부터 3년간 성요셉여고, 10여년간 영성생활 사도직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교대화 사도직과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사도직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하는 종교대화 씨튼연구원에서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나고, 20여년간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앞에 서면 저도 마더씨튼께서 아이들에게 지니셨던 남다른 열정을

느끼곤 합니다. 미래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면서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2년전 대전 가톨릭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동양철학을 강의한 것은 제게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서강대 학생들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가톨릭 교회의 목자가 될 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종교 문화와 영성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은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올해 12월초에도 서울 가톨릭 대학 부제반에 “성경과 대승불교”라는 주제로 특강을 부탁받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는 ‘그리스도교와 동양종교의 비교’라는 주제로 한국 용연구원에서 정신분석전문의를들과 분석심리학자들에게 강의를 하며 지냅니다.

색다른 청중들과의 만남은 많은 긴장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이 그리스도교 영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 땅에 뿌리내려온 종교와 영성을 나누면서 저는 ‘문화적 가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문화적 가난’은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 담긴 하느님의 영적 유산을 지니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겠지요.



하느님의 섭리는 교회를 통해서뿐 아니라 각 문화 안에서 꽃피운 종교영성에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사도직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문화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동아시아 영성을 배우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초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아 놓으심을 저는 제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최선의 하느님께서 최선의 길을 이끄심을 믿고 앞으로의 수도여정도 그분 섭리에 의탁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수녀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Hello Sisters! My name is Sr. Choi Hyun Min.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85, now I find that thirty years already passed since my entrance. From 1988 I taught students at St. Joseph school for three years, and worked with the spirituality journal at Seton Research Center for ten years. Except those years, most of my ministries have been related with interreligious dialogue and teaching students at university. My ministry experiences are not dynamic; however, through involvement in the interreligious dialogue program, celebrating the 23rd anniversary of foundation this year, I met many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In addition, the twenty years of my

teaching at university was a grateful time for me to share with and listen to the pains and concerns of young adults.

Whenever I teach at So Gang university, my heart is filled with the zeal that Mother Seton had toward her students. For me, it is a joy and challenge to share my experiences and thoughts to help the students establish right values. Two years ago, I had a special experience of



teaching Eastern Philosophy at Seoul Seminary. Different from the students at So Gang University, teaching our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 and its spirituality to the seminarians who will become future shepherds for our Catholic Church gave me lots of joy and rewards.



In early December of this year, I will give a lecture to the class of deacons at Seoul Seminary about the Bible and

Mahayana Buddhism. This year has another special meaning to me, I am giving some lectures “The Comparison between Christianity and Eastern religion” to psychoanalysts and psychologists. This is hosted by C.G. Jung Institute of Korea. This new encounter which captured me with stress and tension also gives me an opportunity to think and look at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ity from a new perspective. I am so grateful. Through these various different experiences of listening and talking with all walks of life, I also could reflect on the “cultural poverty” in society.

So-called ‘cultural poverty’ means the state of not keeping or preserving our own spiritual heritage of God contained in each culture. I believe that God’s Providence is revealed not only in religious spirituality of each culture but also in the Church. Therefore, I hope that my ministry can be the place that I can be with people who are in a culturally poor condition in the church and the world.

While learning Eastern Spirituality through my life, I felt I was invited to the chance of deep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love and wisdom of Jesus. I came to realize that God always paves the road we should go before us. Today I believe and trust that the goodness of God leads us in the right way, and I will live my religious journey by trusting totally His Providence, love, gratitude, and faith!

Thank you Sisters!

